

조선시대 수의와 현행 수의의 착의법에 관한 연구

남민이* · 한명숙

중부대학교 강사*,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Choson Shrouds and Current Shrouds How the Deceased Are Clothed

Min-Yi Nam*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Joong Bu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 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how the deceased are clothed. Although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seen the dead clothed once or twice and although the clothing has been constantly going on, there have been no books or studies on how the deceased are clothed. Instead, the methods have only been handed down orally by seniors and others who are experienced in it. I see the necessity of systematizing the method of clothing the deceased so that both ordinary people as well as experts can utilize it properly to show their sincerity and courtesy towards the dead.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including old books, dissertations, publications, and reports on ethnic customs. It also refers from interview results of shrouds makers, those experienced in clothing the dead, and seniors knowledgeable in the trade.

Funeral manifested the social status of the dead.

Shrouds of the olden days had different colors, such as white, black, blue, red, etc. according to items. However, nowadays they are white, pink, or partially light blue or sometimes people just keep the colors of their original cloths.

Current items do not differ much from those of the ancient times, though Kwadu, Km, and Po, which were used to cover the belly, have been relatively simplified. The form of shrouds has changed nowaday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uneral procedures and how the deceased are clothed. In the olden days, when a person died, the body was cleaned up and clothed the very next after death. Nowadays, the cleansing and clothing of the body and placing the body in the coffin are all done together the following day.

According to the foregoing, though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in the way the deceased are clothed between the olden days and the present, the order in which Aksu and Bsn are placed, differs and the procedures, items and shape have been simplified.

Key words : Choson shroud, current shroud, funeral, clothing, dead.

I. 서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죽음은 현세(現世)에서 최후로 통과하는 관문이며 내세(來世)로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는 내세사상(來世思想)을 믿어 왔기 때문에 사자(死者)를 극진하게 후장(厚葬)하여 존경, 추앙을 표시하였다. 현세의 계속으로서 저 세상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보는 내세사상은 영혼불멸(靈魂不滅)과 내세영생(來世永生)의 생사관(生死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사관은 상·제례(喪·祭禮)는 물론 일상에서도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생활규범인 예(禮)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사해서(四禮書)의 내용이 되는 <관(冠)·혼(婚)·상(喪)·제(祭)> 중 상례(喪禮)를 특히 중시하였다. 상례는 민족의 생사관과 조령관(祖靈觀)을 나타내며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관념적(觀念的) 사고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세에 대한 경건함을 갖게 하는 한 의례인 것이다. 사자를 깨끗이 씻기고 의례복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생활양식의 일부이며 우리 민족의 문화이다. 그리고 이 때의 의례복이 수의이다.

수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연구나 서적의 상례(喪禮)편에서 수의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언급되어 있으며, 수의에 관한 논문으로는 유관순¹⁾, 송미경²⁾, 순남숙(荀南淑)³⁾, 성기회⁴⁾, 전영숙⁵⁾ 등의 연구가 있고, 출토복식에 대해서는 박성실·고부자⁶⁾, 유희경·김미자·강순제⁷⁾, 장인우⁸⁾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선시대 문헌이나 출토 복식을 토대로 하여 내세관, 염습구의 문헌별 비교, 외국제도와의 비교, 염습실배 등에 관한 연구 정

도이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는 그나마 조선시대 문헌에 언급된 부분을 조금씩 한 두 쪽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의를 입히는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한 두 번은 겪어왔고 보아왔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끊임없이 수의를 입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연장자나 염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의의 착의 절차에 관한 저술이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여 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현행 수의의 착의절차에 관한 것을 정립하여 앞으로 수의의 착의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의 현행 착의법은 각 종교단체나 연장자,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으로 조선시대와는 옛 문헌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유교적인 예에 따라 전통적인 상장의례를 행할 때는 물론 현재의 상장의례에 따라 행할 때에도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수의의 착의절차를 정립하여 상·장례에 있어 하나의 지침으로서 종교인은 물론 누구나 이를 활용하여 사자에게 정성과 예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가족과 친지들이 사자를 씻기고 성장시키는 전통 관습의 보존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 토 나누어서 상·장례와 수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문헌에 나타난 수의와 현행 수의와의 비교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 39호, 1999, pp.257-269.
- 2) 송미경,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 순남숙,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다산의 염습의 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4) 성기회, "염습고", 관동대논문집 8, 관동대학교, 1981.
- 5) 전영숙, "수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권 2호, 1977.
- 6) 박성실, 고부자, "성남 출토 동래정씨 출토 유물에 관한 소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9.
- 7) 유희경, 김미자, 강순제,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1989.
- 8) 장인우, "조선전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을 하였다.

조선시대 이전은 기록이 별로 없어 옛 무덤에 나타나는 묘제(墓制)와 중국 고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를 살펴 보았다.

조선시대는 예(禮)의 기본이 잘 정립되었던 대표적인 예서(禮書)를 기준으로 하여 상·장례 절차 및 조선시대 수의의 품목, 착의방법 등을 알아 보았다.

현대는 논문, 서적, 민속보고서 등의 문헌과 수의 제작자, 염습경험자, 연장자 등과 면담하여 얻은 자료와 실제 교육내용으로 수의의 재질 및 색채, 품목, 착의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상·장례와 수의의 고찰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의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로 하며, 상례(喪禮) 절차는 임종에서부터 수의와 관련된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까지로 제한하였다.

현행 착의방법에 관한 것은 문헌을 참고로 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불교 연화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과 불교 방송국 원왕생 교육에서 교육하였던 내용, 전국장의연합회 회원들의 교육내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의사 직무분석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인이 봉사활동을 통해 보고 실습한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상·장례 및 수의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으로, 생사(生死)의 문턱에서 이쪽은 이승이고 저쪽은 저승으로서 계급과 신분, 빈부의 차이가 그 입성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이승에서 입던 옷을 저승 갈 때도 수의로 입고 가는 것이 상례(常例)⁹⁾라고도 하나, 사자를 성장시켜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복이다.

1. 조선시대 이전

9) 송호수, 광명숙,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작품 전시회 자료집, 불교자원봉사연합회, 1998, p.8.

10) 『周易』卷23, 繫辭下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牙數 後世聖人易之以棺槨’.
『孟子』卷5, 滕文公上.

11)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까지를 말한다.

12) 동침신전 : 머리가 동쪽으로 놓여 있고, 몸은 수평으로 발을 뻗고 누워있는 자세.

13) 한영희, “육지도”,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 3책, 국립진주박물관, 1974, p.20.

14) 김동호, 박구병, “山登貝塚”, 부산수산대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 1집, 부산수산대, 1973, p.56.

15) 김원룡,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58.

16) 上擧書, p.75.

상고에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그냥 들에다 버렸다가 부모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 민망스럽게 여겨 덮어 묻은 것이 장례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¹⁰⁾.

선사시대(先史時代)¹¹⁾에는 역사적 기록이 없어 수의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의례(儀禮)로 저승에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라는 배려에서 여러 부장품을 함께 매장하고 사자를 성장시켜 왔음을 고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구석기 시대의 무덤으로 확인된 예가 없기 때문에 당시 나타나는 장법을 신석기 시대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신석기시대는 물론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가장 보편적인 장법은 땅을 파고 묻는 토장(土葬)이다. 웅기(雄基) 용수동(龍水洞)의 패총과 회령군 봉의리(鳳儀里)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법으로는 모래지대를 파고 동침신전(東枕伸展)¹²⁾으로 머리 쪽에는 향아리, 두 다리 사이에는 석촉(石燭)을 부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용진군 시도(矢島), 경남 통영군 육지도¹³⁾·연대도, 상노대도의 산동패총¹⁴⁾ 등의 유적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적석총(積石塚)은 흙을 덮는 대신 돌을 쌓은 것으로 구덩무덤과 함께 가장 원시적인 묘제로 볼 수 있으며 부천군(富川郡) 시도(矢島), 춘천의 천전리(泉田里)¹⁵⁾ 등의 유적이 있다.

초기철기시대는 석곽묘, 토광묘, 옹관묘 등 청동기 시대의 것을 이어받고 있으며, 이 시대 새로 퍼진 특수한 묘제는 토광목곽묘(土塋木槨墓)로서, 세형동검, 세문경, 청동 차마구, 철제무기 등의 부장품이 발견되었다¹⁶⁾. 유적지로는 강서군 태성리, 영천시 어은리, 월성군 입실리, 봉산군 송산리, 김해군 양동리 등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고서나 문헌에 우리나라의

상·장례 및 수의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남사(南史)』의 「동이전(東夷傳)」 고구려 편에 '남자와 여자가 혼인만 하면 벌써 장사지낼 때 입던 옷을 장만한다. 그리고 장사는 후하게 지낸다. 금, 은, 돈, 폐백 같은 것을 후하게 써서 장사를 지낸다...¹⁷⁾'는 내용이 있다. 백제는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북사』 「백제전」 백제편에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복을 입는다. 그 나머지 친척들은 장사만 지내면 이내 복을 벗는다¹⁸⁾'는 기록이 있다. 신라는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 신라 편에 '사람이 죽으면 날을 쓰고 염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든다. 왕이나 부모, 그리고 처자가 죽었을 때 1년밖에 복을 입지 않는다¹⁹⁾'고 하였다. 『삼국사기』권 제9 「신라본기」에 '...사호를 효성이라 하고, 유언한대로 범류사 남쪽에서 불사르고 유골은 동해에 뿌렸다...'고 하며, 선덕왕의 유언도 '...불교의 법식에 따라 화장하고, 유골은 동해에 뿌릴 일이다...'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는 불교의 법식에 따라 화장이 성행하였고, 뼈를 항아리에 담아 묻는 매장법이 유행하였으며²⁰⁾ 이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고려(高麗) 편에 '죽은 사람은 빈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3년이 지난 뒤에 길일을 가려서 장사를 지낸다.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모두 3년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을 입는다. 초종(初終)을 치를 때는 모두 곡(哭)하고 울지만 장사를 치르고 나면 복을 치고 춤추면서 풍류를 아뢰어서 죽은 이를 보내는 예를 베푼다.²¹⁾'고 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서 염습이란 말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란 수의(壽衣)개념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문헌에서 보이고 있으며, 초종이나 상복 입는 기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상례의 절차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동천왕(東川王, 248년) 때 순장법(殉葬法)을 금지시켰고, 신라는 6세기 초에 가서야 순장법을 금(禁)하고 상복법(喪服法)을 정하였으며, 백제도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상복제도(喪服制度)를 제정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상례절차에 따른 수의와 상복 등의 상례복식이 사용된 것은 영혼불멸이라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순장법이 사라지면서부터 라고 본다²²⁾.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저승세계를 신신 세계로 보고 이승과는 통하지만 다른 모습을 띠는 세계라 인식하는 도교적(道教的) 저승세계에 대한 관념, 조상숭배 사상이 보이고 있으며, 그 후 불교 영향의 통일신라시대 상·장례(喪葬禮)가 고려까지 나타나다가 고려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가 수입되면서 조선시대 대표적 상·장례의 모습을 보인다.

이상으로 보아 문헌의 기록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죽음에 대한 예를 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이미 기본적인 상·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조선시대로 보인다. 이는 각종 예서(禮書)의 상례절차에서 초종에서부터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등 염습의(斂襲衣)에 관한 상세한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상례비요(喪禮備要)』, 『상례언해(喪禮諺解)』, 『가례언해(家禮諺解)』, 『사례편람(四禮便覽)』을 통해 사자에게 입히는 복식인 수의와 관련된 상·장례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조오례의」에서의 상·장례절차

국조오례의는 군왕(君王)으로부터 평민(平民)에

17) 上揭書, p.86.

18) 이민수, 『朝鮮傳』, 탐구당, 1995, p.201.

19) 上揭書, p.223.

20) 국립민속박물관, 영원한 만남 '한국의 상장례', 미진사, 1990, p.134.

21) 이민수, 前揭書, p.210.

22) 국립민속박물관, 前揭書, p.159.

이르기까지 그 신분에 상응하는 예제(禮制)에 따르도록 예(禮)의 기본을 정립한 조선왕조 시대의 대표적 예서(禮書)이다. 오례의(五禮儀)는 길례(吉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흉례(凶禮)의 다섯 가지 예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조오례의 서문에는 이 다섯가지 예의를 갖추어 행함으로서 사람의 도리가 구체화된다고 하여 이 예제(禮制)가 인간생활의 규범으로서 소중히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예서는 전래(傳來)의 고제(古制)와 중설(衆說)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예의 기본원칙과 그 시행절차를 통일·집대성하고 있다²³⁾.

국조오례의 권지7(卷之七)²⁴⁾에는 황제의 부음(訃音)을 알리고 애도하는 의식인 위황제 거애의(爲皇帝舉哀儀), 거임의(學臨儀), 계복의(除服儀), 국훈고명(國恤顧命), 초종(初終), 복(復), 역복(易服)불식(不食), 계령(戒令),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곡(僞位哭), 거림(舉臨), 함(含), 설빙(設冰), 영좌(靈座), 명정(銘旌), 고사묘(告社廟), 소렴(小斂), 전(奠), 치벽(治柩), 대렴(大斂), 전(奠), 성빈(成殯), 전(奠), 여차(廬次), 성복(成服) 등 임금의 상례절차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조오례의 권지 8(卷之八)²⁵⁾의 마지막에는 대부(大夫)·사서인(士庶人)의 상(喪)에 관한 것으로 초종에서 복, 입상주(立喪主), 역복불식, 염습, 전, 위위곡, 함, 영좌, 명정, 소렴, 전, 대렴, 성복, 삭망전, 분상(奔喪), 조상(弔喪), 치장(治裝), 각지석(刻誌石), 명기(明器: 장사지낼 때 묘에 시체와 함께 묻는 여러 가지 기물(器物)), 복완(服玩: 요자리나 옷 등속을 작게 만든 것), 대여(大輿), 삼(窆: 부처 모양을 한 관의 장식), 신주(神主), 계빈(啓殯), 조전(祖奠: 발인 전 노신(路神)에게 올리는 제전), 견전(遣奠: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전), 발인, 임광전(臨壙奠: 하관할 때 올리는 제전), 신주제서(神主題書), 반곡(返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까지 상세히 전개되어 있다.

23) 범제처, 『國朝五禮儀』 제 3권, 신홍인쇄, 1982, 서문.

24) 上揭書.

25) 上揭書.

26) 홍윤표, 『상례언해』, 홍문각, 1977, p.1.

27) 홍윤표, 『家禮詳解』, 홍문각, 1984, p.1.

2) 『상례비요』에서의 절차

상례비요는 조선시대 중기의 예서로 1621년 신의경(申義慶)에 의해 편찬되었다. 상례비요에 나타나는 초종에서 대렴까지의 상례절차에서는 지구(之具)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다른 예서와 다른 점으로 절차상의 큰 차이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초종지구〔初終之具(초종, 복, 입상주)〕, 역복지구〔易服之具(역복불식)〕, 치관지구〔治棺之具(치관, 부고)〕, 천시지구〔遷尸之具: 천시, 굴차(掘次)〕, 목욕지구〔沐浴之具〕, 설빙지구〔設冰之具〕, 습구(襲具), 반함지구〔飯含之具〕, 전구(奠具), 위위지구〔僞位之具〕, 영좌지구〔靈座之具〕, 혼백지구〔魂帛之具〕, 명정지구〔銘旌之具〕, 소렴지구〔小斂之具〕, 환경지구〔環經之具〕, 전구(奠具), 경대지구〔經帶之具〕, 대렴지구〔大斂之具〕로 되어 있다.

3) 『상례언해』에서의 절차

상례언해는 종실(宗室)인 덕신정(德信正) 이문수(李文叟)가 김장생(金長生)이 편찬한 『가례(家禮)』 중에서 상례의 초종지례(初終之禮)를 집록(輯錄)하고 언해하여 편찬한 책을 둔촌(澗村) 김만중(金萬中)이 고치고 더하고 빼어서 1716년에 다시 편찬²⁶⁾한 것이다.

상례언해의 초종에서 대렴에 이르는 상례절차를 살펴보면 초종, 복, 입상주, 역복불식, 치관, 목욕, 습, 전, 위위곡, 반함, 영좌, 혼백, 명정, 소렴, 전, 대렴으로 국조오례의와 거의 동일하다.

4) 『가례언해』에서의 상·장례 절차

가례언해는 주자(朱子)가 만든 『가례(家禮)』를 신식(申湜:1551~1623)이 언해한 책을 그의 아들 신득연(申得淵)이 1632년 간행한 책이다²⁷⁾. 절차는 국조오례의와 거의 동일하다.

5) 『사례면람』에서의 상·장례 절차

사례편람은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예서이며, 사례편람 권지(卷之) 3²⁸⁾에 초종에서 대렴까지의 절차가 나타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종(초종, 복, 입상주, 역복불식, 치관, 부고), 습(굴차(掘次), 진습의(陣襲衣)), 목욕반합지구(목욕, 설빙, 습, 전, 위위곡, 반합, 영좌, 혼백, 명정), 소렴(설전(設奠), 팔발마면포좌마(括髮麻免布整麻), 수소렴(淪小斂), 주인주부풍시곡벽(主人主婦馮尸哭擗), 전(奠)), 대렴(大斂)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조선시대 예서를 살펴본 결과 상례절차에 있어서는 왕의 경우 추가되는 특별한 몇 가지 절차를 제외하고는 신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조오례의에서 사례편람까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라도 표현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표 1).

Ⅲ. 조선시대 수의와 착의법

1. 수의의 재질 및 색채

1) 수의의 재질

예서에 나타난 수의의 재질을 살펴보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저사(紵絲), 백초(白紵), 백라(白羅), 청라(靑羅), 신면(新綿)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포(細布), 세(細), 면(綿), 면포(綿布), 증(縉) 등이 『상례비요』에서 사용되었고, 『사례편람』에도 세포(細布), 세(細), 견(絹), 금(錦), 포(布) 등이 나타나 조선시대에는 주로 저사, 라, 면 등이 수의의 재질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삼베, 모시, 무명, 명주, 초(紉), 증(縉), 능(綾), 공단(貢緞), 은조사, 생고사 등이 주로 이용²⁹⁾되었다고 하고, 공단, 나단(羅緞), 명주, 능, 초, 은조사, 생고사(生庫紗), 생수(生水), 삼팔, 모

시, 마(麻) 등을 사용했는데 민가에서는 모시나 마포를 사용했다³⁰⁾고도 하며, 세포(細布), 공단(貢緞), 베, 공능(貢綾)으로 한다³¹⁾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단, 삼베, 면의 일종인 이러한 옷감들이 수의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과거에는 비단은 사대부 층에서 사용하였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명주로 그 외 서민들은 삼베로 했다³²⁾고도 한다.

2) 수의의 색채

『국조오례의』에 백초(白紵)로 만든 한삼, 고, 말 등과 홍단령, 홍녹선(紅綠緞)의 대대, 검은 푸른 라(羅)를 쓰고 안은 분홍 초(縹緞)를 쓴 명목과 악수, 흑색 복건 등이 나타나며, 흑단령 등의 기록³³⁾도 있으며, 『상례비요』에도 흑중(黑縵), 훈중(纁縵), 백세포(白細布), 면포(綿布) 등이 나타나 있고, 『사례편람』에도 흑중, 훈초, 백세포, 면 등이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일부 악수나 명목 등에서 청이나 분홍 등의 색채가 나타나고 있으나 검정과 백색, 옷감 그대로의 소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수의의 색채와 재질을 비교한 것이다.

2. 수의의 품목

수의는 생전의 예복(禮服)과 같은 길복(吉服)으로서 가장 성장을 해 왔으므로 유관자의 경우는 공복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인들도 혼례 때는 사대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공복을 사용하였으며³⁴⁾, 혼례 때 입던 예복을 수의로 사용하기도 하고, 혼례복과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였다³⁵⁾고 한다.

남자수의는 『국조오례의』에는 단령, 답호, 첩리, 한삼, 고, 대대, 복건, 망건 등이 사용되었으며,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에 심의, 답호, 한삼, 포오, 고, 단고, 늑백 등이 있으며, 그 외 출토복식에서 중

28) 한국인문과학원, 『四禮便覽』.

29) 광명숙, 前揭書, p.21.

30)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p.331.

31) 김숙당, 『조선재봉전서』, 민속원, 1925, pp.178-180.

32) 유관순, 前揭論文, p.111.

33) 법제처, 前揭書, pp.26-27.

『國朝五禮儀』 卷之七, 凶禮 六.

34) 남민이, "가정과 교육이 여성 결혼예식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3, pp.3-4.

35) 문화공보부,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980, p.164.

<표 1>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상례(초종-대렴)절차

국조오례의		상례비요	상례언해	가례언해	사례편람	
왕	대부·사서인				초종	초종
국홀고명		초종지구	초종	초종		
초종	초종		복	복	복	복
복	복		입상주	입상주	입상주	입상주
	입상주	역복지구	역복불식	역복불식	역복불식	역복불식
역복불식	역복불식	치관지구	치관	치관	치관	치관
	치관		부고		부고	부고
계령	부고					굴감(掘坎)
		천시지구	시굴감(尸掘坎)			진(陣)습의
목욕	목욕	목욕지구		목욕	목욕	목욕
		설빙지구				설빙
습	염습	습구		습	습	습
		반함지구				
전	전	전구		전	전	전
위위곡	위위곡	위위지구		위위곡	위위곡	위위곡
거렴						
합	합			반함	반함	
설빙						
영좌	영좌	영좌지구		영좌·혼백	영좌·혼백	영좌·혼백
		혼백지구				
명정	명정	명정지구		명정	명정	명정
고사묘						설전(設奠)
소렴	소렴	소렴지구		소렴	소렴	括髮麻免布 壓麻
		환질(環絰)지구				濯소렴
전	전	전구		전	전	主人主婦馮 尸哭辨
		질대(經帶)지구				전
지벽						
대렴	대렴	대렴		대렴	대렴	대렴

<표 2>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수의의 색채와 재질

품목	문헌	국조오례의		상례비요	사례편람(女喪일때)
		왕(내상)	사서인		
表衣	곤룡포	(장삼)			
	담호	紵絲			
	첩리				
	단령	羅			
	담호				
	첩리				
	단령	紅紵絲	흑색	심외; 白細布	심외; 白細布 (원삼; 紵, 絹)
	담호	담호			
	첩리	첩리			
上衣	한삼	白絹(依)		紵, 綿布	紵, 綿布
下衣	고	백초(裳)		紵, 綿布	紵, 綿布
帶	대대	白羅에紅, 綠 選(靑羅)	백라에 홍, 녹 선	白絹	(錦)
	늑백				綿布
頭衣	首冠	白羅	黑羅복건	복건; 흑증, 紵	
	망건	조라	黑紵	흑증	
	층이	新綿	新綿	新綿	白臙, 雪綿
	명목	겉; 청라 안; 縹絹	겉; 흑라 안; 분홍	겉; 縹帛 안; 縹	
	掩, 纒				흑증(흑증)
裹肚	과두	백초			紵, 綿布
手衣	악수	겉; 청라 안; 縹絹	겉; 흑라 안; 분홍	겉; 玄帛, 紵 안; 縹	겉; 帛, 紵 안; 縹
足衣	襪	백초			
	履	홍저사	흑라	黑紵, 糊紙	黑網, 布, 糊紙

치막³⁶⁾이 있다. 여자수의는 『국조오례의』, 『상례비요』, 『사례편람』에서는 심외, 한삼, 포오, 삼자, 엄(掩), 사(纒)등이 나타나며, 출토복식에 장의(長衣),

명외(明衣)³⁷⁾가 나타나고 있다. 남녀공용(男女共用)으로는 면목, 과두, 오낭, 악수, 버선, 습신, 대령금, 소령금, 천금, 지요, 베개 등이 『국조오례의』, 『상례

36) 유관순, 前掲書, p.14, 정문공진종록(正文公眞終錄).

37) 上掲書, p.14, 충문공진종록(忠文公眞終錄).

비요, 『사괘편람』에 나타나고 있다.

3. 착의방법

1) 염 습(殮襲)

조선시대 예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목욕을 시킨 후 명의를 입혀 이불로 덮어둔다. 다음날 하의를 입히고 제일 걸옷인 심의를 제외한 상의를 입힌 다음 반함을 한다. 그리고 복건, 명목 등으로 얼굴을 쓴 후 심의를 입히며 이 과정을 염습(殮襲)이라 한다. 염습을 한 후 소렴, 대렴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옷을 입히기 전에 입히기 편하도록 겹쳐서 입히는 순서대로 펼쳐놓고 목욕시킬 때 필요한 양미번(梁米潘: 양미는 기장쌀이며 번은 뜨물이다)이나 향탕수, 수건 등 물품을 준비하여 둔 다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 습을 한다. 소렴을 하기 전에 다시 소렴에 필요한 옷가지를 나열한 후 소렴을 행하고, 대렴을 하기 전에 대렴에 필요한 옷가지를 나열한 후 대렴을 행하게 된다. 소렴하기 전까지의 염습 과정인 목욕, 습, 반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 욕(沐浴)

준비된 양미번을 수건에 적시어 머리를 감긴 다음 빗질을 하고 머리를 묶은 후 수염을 다듬는다.

그리고 향탕수를 수건에 적시어 상체를 닦아내며, 상체를 씻은 후에 하체를 닦아내고 머리 감길 때와 상체·하체를 목욕시킬 때 수건을 하나씩 따로 사용한다. 그런 다음 명의를 입히고 얼굴을 덮고 이불로 덮는다.

머리감길 때 떨어진 머리카락은 주머니에 담아 두었다가 대렴할 때에 관 속에 넣는다.

(2) 습(襲)

『국조오례의』에는 습의를 준비해 두고 아래부터 위로 입힌 후에 복건을 하고 총이, 명복, 리를 신기고 습을 한 후 대대, 악수를 하고 금으로 덮는다고 하

였다.

『상례비요』에는 옷을 입힌 후 망건, 복건, 총이, 명복을 한 후 심의를 입히고 대대와 악수를 한다고 하였으며, 『가례언해』에서는 옷을 입힌 후 반함을 한 후 복건, 총이, 명복, 리를 신기고 나서 심의를 입히고 대대, 악수를 한다.

『사괘편람』에서는 하의를 먼저 입히고 좌우 발(襪)을 신긴 후 누백으로 묶은 후 반함을 한 후 망건, 복건, 총이, 명복, 리를 신기고 심의를 입히고 대대, 악수를 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습을 행할 때는 먼저 옷을 입히기 편하도록 옷은 옷대로, 아래옷은 아래옷대로 포개어 놓고 깃이나 소매 끝단, 허리 등을 꿰매어 놓기도 한 다음 나중에 입히는 옷이 아래에 먼저 입히는 옷이 위에 오도록 나열해 놓고 행한다. 목욕을 시킨 후 고·단고 등 아래옷을 당겨서 끌어올려 입힌 다음 좌우 버선을 신기고 누백은 무릎까지 오도록 하여 정강이를 묶는다³⁸⁾. 옷을 입히며 이 때 복건과 심의는 입히지 않는다.

그런 후 반함을 하고 망건과 복건을 한다. 여상일 경우는 엄(掩)을 사용하며 왼쪽으로 머리를 싸고 뒤에 붙은 두 끈은 앞으로 하여 턱 아래에 묶고, 앞의 끈은 뒤로 하여 목 가운데에 묶는다³⁹⁾. 총이를 하고 명복을 한다. 명복은 네 귀퉁이의 끈을 뒤로 묶게 하여 얼굴을 덮어 씌운다⁴⁰⁾. 그리고 리(履)를 신긴 후 심의를 입히고 대대를 한다. 대대는 동심결로서 허리를 돌려 앞에서 묶고 다시 감아 두 귀를 만들고 나머지는 늘어뜨린다.

마지막에 악수를 한다. 악수는 오른손을 악수의 가운데 놓고 한끝으로 손등을 덮어 끈으로 한번 둘러 위에 오게 한다. 다른 한 끝을 덮어 끝이 손바닥으로 가게 하여 돌려 손밖으로 나와 무명지(無名指)와 장지(長指)사이에 넣어 장지와 식지(食指) 사이로 나오게 하고 중지(中指)로 끈을 잡아 아래로 가게 하여 소지(小指) 뒤로 다시 돌려 손바닥으로 가게 한다.

38) 송미경, 前掲論文, p.11.

39) 『四禮便覽』, 卷之三, 十六.

40) 『國朝五禮儀』, 卷之八, 大夫·士庶人 喪 襲 법제처, 前掲書, p.275.

그리고 먼저 위에 빼낸 끈을 같이하여 손등의 중심에 매며 왼손도 같다⁴¹⁾고 하였다.

또는 오른손을 악수의 좁은 곳에 놓고 아래 한 끝으로 손등을 덮어 끈으로 팔을 한번 감아 돌리고 다시 위로부터 잡아당긴다. 위의 한쪽 끝으로 거들하여 가린다. 끈으로 손 안쪽을 향하여 팔을 감고 손등을 거쳐 위로 향한다. 무명지와 장지 사이로 끈을 넣어 장지와 식지 사이로 내온 다음 중지를 걸어서 끈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소지 뒤쪽의 팔목을 거쳐 다시 손 안쪽을 향하여 잡아당긴 끈과 손목에서 묶는다고도 하였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아령처럼 생긴 악수의 양쪽 넓은 부분이 손등, 가운데 좁은 부분이 손과 손 사이의 간격으로, 양 끈이 각 손바닥으로 해서 위를 따라 손가락(二指와 三指사이) 밖으로 나와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감고 팔목을 감아 각각 한번 돌려 감고 서로 묶어 양팔이 서로 연결된다⁴²⁾고도 하였다.

(3) 반 함(飯含)

반함이란 사자의 입에 씌어나 구슬을 채우는 것으로, 먼저 쌀을 씻어 담고 진주 3매를 준비한 후 수저로 쌀을 떠서 입안 오른쪽에 채운 다음 진주도 1매 넣는다. 그리고 왼쪽에 쌀을 채우고 구슬도 넣고 다음에 입 가운데에 쌀을 채우고 구슬도 넣는다.

그런 후 복건, 충이, 명목을 하고 신을 신긴 후 걸 옷을 입힌 다음 대대를 하며 악수를 하고 이불을 덮는다⁴³⁾.

2) 소 령(小斂)

소령이란 수의를 입힌 시신을 의금(衣衾)으로 싸는 것으로, 포와 이불(소령금), 산의, 염의를 준비한다. 포는 교포라고도 하며, 한 폭으로 된 횡포 셋과 종포 하나를 쓰며 한 폭의 양끝을 세 갈래로 하여 쓴다. 가로로 된 것은 몸을 감아서 서로 맬 수 있게 하고 세로로 된 것은 머리를 가리어 발에 이르기까지

감아서 다시 몸 가운데에서 맬 수 있게 만든다.

소령은 먼저 가로로 된 횡포 셋을 깔고 그 위에 세로로 된 종포 하나를 칸 다음 이불을 교포(絞布) 위에 펼쳐놓고 산의를 칸다.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옷을 접어 머리에 받치고 산의로 머리 쪽과 양어깨, 양쪽 정강이쪽도 채운 다음 이불로 싸며 발을 먼저 싸고 머리를 덮는다. 『국조오례의』에는 아직 교포를 묶지 않고 이불로 덮어둔다⁴⁴⁾고 하였다.

16세기 여성 염습의 일례⁴⁵⁾에서도 횡포, 종포 위에 소령금을 깔고 머리부분에 저고리를 뒤집어 접어 놓았으며 시신을 옮긴 후 머리, 얼굴, 턱에 산의로서 저고리, 대퇴부에 치마·장옷을 넣었고, 소령금의 발과 머리 부분을 접어 올리고 우입으로 싸고, 종포(종포)를 묶고 횡포를 묶는다고 하여 예서의 소령과는 교포를 묶지 않는다는 점을 빼고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 령(大斂)

대령이란 의금으로 싯 후 입관을 시키는 것으로, 교포(絞布), 이불, 산의, 염의를 준비한다. 교포는 가로로 된 가로 횡포 다섯과 세로 종포 셋을 사용하며, 이불은 둘을 사용할 때는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는다.

대령은 먼저 관중(棺中)에 가로 횡포 다섯을 깔고 그 위에 종포 셋을 칸 다음 이불을 교포 위에 펼쳐놓고 산의를 깔고 소령 때 묶지 않았던 교포를 묶고 대령포 위에 시신을 옮긴다. 산의로 보공을 하고 평소 빠진 이(齒)나 머리털, 목욕 시에 주머니에 담아놓은 손·발톱과 산의로 보공을 하여 빈 공간을 채우며, 이불을 덮는데 발을 먼저 싸고 머리를 덮으며 좌우로 감싼다. 그리고 교포를 묶는데 종포를 먼저 묶고 횡포를 묶는다. 그런 후 관 뚜껑을 덮고 못을 박은 후 관의(棺衣)를 덮고 병풍을 친다.

대령에는 관 속에 교포를 넣고 시신을 묶는 방법은 경(敬)하지 못하고 관이 좁으므로 단단히 묶여지지 않아 교포로 묶은 후에 관 속에 시신을 넣는 두가

41) 『四禮便覽』 卷之 三 喪 十六. 송미경, 前揭論文, p.12.

42) 순남숙, 前揭論文, p.107.

43) 『四禮便覽』,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44) 『國朝五禮儀』, 법제처, p.279.

45) 이은주, 16세기 여성 염습의 일례, 복석48호, 한국복식학회, 1999, pp.157-158.

지 방법이 있다⁴⁶⁾고도 한다.

16세기 여성 염습의의 일례에서는 관 안에 지오와 석을 깔고 대렴상태의 시신을 입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IV. 현행수의와 착의법

1. 수의의 재질 및 색채

1) 수의의 재질

최근에는 삼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수의제작에 주로 삼베가 이용되는 것은 삼베의 특수 성분 때문이기도 하다. 여름철 삼베 보자기로 밥을 덮었을 때 쉬지 않게 하는 항 바이오 작용이 사체가 유탈되면서 벌레나 잡균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준다.

그리고 삼베는 산에 강하므로 시신이 유탈되는 과정에서 뼈가 쉽게 호트러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삼베는 수의의 재료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에도 삼베를 입혔다⁴⁷⁾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명주는 시신이 썩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기록⁴⁸⁾도 있고, 뼈에 감기고 붙는다⁴⁹⁾고도 하는 말이 있으나 수의의 기록이 문헌에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 명주는 수의에 사용되고 있다. 본인의 봉사활동 중 사례(事例)에서도 주로 삼베였으나, 삼

베와 명주를 섞어 만들어진 것도 있었으며 명주로 만든 것도 있었다. 그리고 사자가 평소에 장만해 놓은 목면으로 만든 소복(素服)을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단이나 인견으로 만든 수의도 있었다.

대한불교연화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현행수의의 가격과 직조방법, 명칭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삼베가 주를 이루며, 서울·경기·광주 지방도 삼베로 만든 수의가 주(主)를 이루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명주로 만든 수의의 수요가 많은 것이 특이한 점으로 거의 삼베 수의와 명주 수의의 비율이 절반을 이룬다⁵⁰⁾고 하여 이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값이 싼 제품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질이 낮은 조악한 삼베나 마사(麻絲)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최고 고급품의 국내의 안동포로 만들어진 수의는 좋은 품질과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값이 매우 비싸다. 만들어진 지방과 삼베의 직조방법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가격에 따라 질의 차이가 큰 편이다.

<표 3>은 연화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의의 가격과 수의에 사용된 삼베의 직조방법, 불려지고 있는 삼베의 명칭을 정리해 본 것이다.

삼베의 종류로 보면 최고 고가품으로 안동포, 고급품으로 보성포, 순창포, 보통품으로 강포, 남해포 등이 있으며, 하품(下品)은 삼베라고 할 수 없는 마사(麻絲)로서 육마, 진마, 육수라 하여 품질이 조악한 편이다.

<표 3> 가격, 직조방법, 삼베의 명칭에 따른 수의의 구분

구분	가격(만원)	직조방법	삼베의 명칭
특	600~1,000	수직(手織)(손으로 짠 삼베)	안동포
상	400~600	수직	보성포, 순창포 등
중	200~400	수직과 기계직의 혼합 교직	강포, 남해포, 세포 등
하	100~200	기계직	육마, 진마, 마사
최하	50~100	기계직	육수

46) 송미경, 前掲論文, p.39.

47) 광명숙, 前掲書, p.21.

48) 문화공보부, 前掲書, p.62.

49) 유관순, 前掲論文, p.122.

50) 유정행, 대한불교연화회, 본인면담, 1999.

삼베의 직조방법으로 보면 고급품의 삼베는 손으로 꼬아서 만든 실로 손으로 직조한 삼베이지만, 손으로 만든 실과 기계로 만든 실을 합하여 손으로 직조한 것도 있고, 기계로 만든 실과 손으로 만든 실을 기계로 직조한 것도 있다. 값은 손으로 꼬아 만든 실로 손으로 직조한 것이 가장 비싸며, 손으로 만든 실과 기계로 만든 실을 손으로 직조한 것이 손으로 만든 실과 기계로 만든 실을 기계로 직조한 것보다 비싸며, 기계로만 직조한 삼베는 값이 더 저렴한 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삼베의 종류에 따라 가격의 격차가 심한 편이며, 가격에 따라서는 바느질의 질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모양도 고급품은 조금 손이 더 가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정도이다.

2) 수의의 색채

조선재봉전서의 초록 회장저고리, 분홍 저고리, 연두 원삼, 옥색 겹옷, 백색, 남색 중추막, 검정 복건, 과두, 자주색 지요, 색동 장옷과 홍색과 녹색이 배합된 신⁵¹⁾ 등이 나타나며, 혼인 때의 예복과 같이 수의를 한다⁵²⁾고도 하여 수의에 유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들이는 물감은 청은 청되물, 홍은 잇다홍, 황은 해나무 열매, 자주는 짓치, 분홍은 연지로 들이나 물감들이기가 불편하여 그냥 세포(細布)를 많이 이용한다⁵³⁾ 하였다. 주로 소색이 이용되나 백색도 이용되고 있으며, 명목, 악수, 모자 등에 걸은 검정, 안은 붉은 색을 쓰기도 하며 연한 색을 일부에 이용하기도⁵⁴⁾ 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의의 색채는 옛날과 큰 차이는 없으며, 주로 삼베 그대로의 소색이 사용되고 있고, 백색이나 부분적으로 검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혼인 때 입었던 옷을 수의로 사용할 때는 화려한 혼인 예복의 색채도 수의의 색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인의 봉사활동 중 사례(事例)에서도 수의의 색채는 주로 소색이었으나, 백색도 사용되고 있

었으며, 남자의 겹옷은 검정도 있었고, 소색에 깃 부분이나 대(帶)에 옥색 등을 배색(配色)하여 사용한 예(例)도 있었다. 명목의 안쪽을 다른 색채로 배색한 것도 있었으며, 습신의 부분에 검정이나 붉은 색을 사용한 것도 있었으며, 복건이나 여모, 악수 등에 연하고 화려한 색채로 수(繡)를 놓은 것도 있었다.

2. 수의 품목

남자 수의는 주로 심의나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적삼, 바지, 속고의, 복건, 행전, 대님 등이 사용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감(加減)하여 이용된다.

<표 4>는 현대문헌에 나타난 남자 수의의 품목이다.

문헌에는 겹옷으로 심의, 학창의, 창의, 도포, 겹옷, 중치막, 주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요즘에는 심의나 도포, 두루마기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

여자 수의는 당의, 삼회장 저고리(연두색), 속저고리, 삼회장 저고리(노란색), 속적삼, 홍치마, 청치마, 단속곳, 바지, 속곳, 여모 등⁵⁵⁾도 있고, 회장저고리, 분홍저고리, 단상⁵⁶⁾ 등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현재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원삼 혹은 당의, 저고리, 속적삼, 치마, 단속곳(혹은 속치마), 바지, 속바지(혹은 속속곳), 여모가 있다.

<표 5>는 현대 문헌에 나타난 여자 수의의 품목이다.

문헌에는 겹옷으로 원삼, 당의가 나타나 있으나, 주로 원삼이 겹옷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의로 삼회장저고리(연두·노랑), 회장저고리, 분홍겹저고리 등이 보이나 적삼과 저고리가 이용되고 있다. 공용 수의로는 면복, 과두, 오냥, 버선, 습신, 대림금, 소림금, 천금, 지요, 배개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남녀 같고, 조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

3. 착의(着衣)방법

51) 문화공보부, 前掲書, p.365.

52) 上掲書, p.164.

53) 김숙당, 前掲書, p.180.

54) 석주선, 『우리나라 옷』, 광문출판사, 1961, p.130.

55) 上掲書, p.124.

56) 김숙당, 前掲書, p.178.

〈표 4〉 현대 문헌에 나타난 남자수의의 품목 비교

문헌 품목	조선 재봉전서	우리나라 옷	우리의 전통 예절	전통한복 구성	생활한복	현행수의
表衣	원삼, 당의	원삼	원삼, 당의	원삼	원삼, 당의	원삼
上衣	회장저고리, 분홍저고리	삼회장저고리 (연두), 삼회장 저고리(노랑), 속저고리	삼회장저고리, 저고리	삼회장저고리(연두), 삼회장저고리(노랑), 분홍접저고리,	삼회장저고리 (연두, 노랑), 분홍접저고리	저고리
	속적삼	속적삼	적삼	속적삼	속적삼	적삼
下衣	남치마, 홍치마	청치마, 홍치마	치마	치마	홍치마, 청치마	치마
	단상					속치마
	단속것	단속곳	단속곳	단속곳, 속속곳	단속곳, 속속곳	단속곳
	바지	바지	고, 소고	바지	바지	바지
頭衣	여모	여모	여모	여모	여모	여모
	면모	명목	명목	면목	명목	명목
		과두(裹頭)	과두	과두	과두	과두
帶	원삼띠	원삼띠	조대(條帶), 대대	조대	조대	원삼띠
裹肚		과두	복보	복보	복보	
手衣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足衣	버선	버선	말	버선	버선	버선
	신	습신	습이	습신	습신	습신
기타	내공오랑	오랑	오랑	오랑	오랑	오랑
	대, 소렴금	대렴금	대렴금	대렴금	대렴금	
		소렴금	소렴금	소렴금	소렴금	소렴금
		천금	천금	천금	천금	천금
		지요, 베개	지요, 침(枕)	지요, 베개	지요, 베개	지요·베개
	현운, 두수, 단기, 영		토수(吐手), 유목잠(柳木簪)	토시, 유목잠	토시, 유목잠	염포
		충이				

상례차례 중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을 염습(斂襲)이라고 한다.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

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 현대에 진행되고 있는 상례절차 중 운명에서부터 수시, 염습을 하고 성복(成服)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현대 문헌에 나타난 여자수의 품목 비교

문헌 품목	조선재봉전서 (김숙당)	우리나라옷 (석주선)	우리의 전통예절 (유송옥)	전통한복구성 (박명순)	생활한복 (조효순)	현행수의
表衣	학창의, 증치막, 겹웃	심의, 창의, 겹웃	심의 · 학창의 · 도포, 증치막 · 창의 · 주의,	심의, 창의, 겹웃	심의, 창의, 겹웃	심의 · 도포, 두루마기
上衣	저고리	저고리	유(襦)	저고리	저고리	저고리
		속적삼	적삼	속적삼	속적삼	적삼
下衣	바지	바지	고(袴)	바지	바지	바지
	고의	속고의	고의(袴衣)	속바지	속고의	속바지
頭衣	복건	복건	복건, 망건	복건	복건	복건
	망건					
	면모	명목	떡목	면목	떡목	명복
	과두(머리싸는 보)	과두	과두(裹頭)	과두	과두	과두
帶	띠, 허리띠, 대님	허리띠, 대님	조대, 요대, 단임, 행전	허리띠, 대님	허리띠, 대님	대대, 대님
裹肚	복과		腹襟	복보	복보	
手衣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足衣	신	습신	습이(襲履)	습신	습신	습신
		버선		버선	버선	버선
기타	대렴	대렴금	대렴금	대렴금	대렴금	
	소렴	소렴금	소렴금	소렴금	소렴금	
		천금	천금	천금	천금	천금
	베개	베개	침(枕)	베개	베개	지요
	지요	지요	지요	지요	지요	베개
		오냥		오냥	오냥	오냥
	속발단기 현은, 영		총이, 토수(吐手)			염포
	총이는 솜을 사용하므로 기타에서 대체로 생략되고 있다					

한다.

1) 초 종(初終)

초종은 상례의 시작으로 운명하는 순간, 별세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임종(臨終), 종신(終身)등과 같다⁵⁷⁾고 하며, 천거정침(遷居正寢), 운명(殞命), 복(復), 수시(收屍), 발상(發喪), 부고(訃告)까지의 과정을 포함

(1) 천거정침(遷居正寢)

병세가 위중하면 안방이나 거처하던 처소(處所)로 옮겨 편하고 바르게 눕힌 후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 입힌다. 안팎을 정숙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환자

57) 범제처, 前掲書, p.271.

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속광(屬纊)을 한다. 속광은 옛부터 내려오던 숨을 쉬는자를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헛숨을 얇게 하여 코 밑에 올려놓고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여 숨이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요사이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복(復)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초혼은 사자의 허공에 떠있는 유혼(遊魂)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⁵⁸⁾으로 혼이 자신이 입던 옷을 보고 돌아와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행해졌던 절차이다. 운명 후 평소에 입던 옷을 가지고 안방 문 앞 추녀 밑에서 북쪽을 향해 생시호칭(生時呼稱)으로 “아무개 복” 하고 세 번을 부른 뒤 지붕에 던졌다가 잠시 후 그 옷을 내려 시신 위에 덮고 흠이불로 덮는다.

(3) 수 시(收屍)

수시란 시신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수족(手足)을 골고루 주물러 굽힘이 없이 바르게 펴고 묶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도암(陶庵, 李穡) 선생은 ‘이를 벌리고 발을 잡아 댈 뿐 아니라 머리·얼굴·사지 등 몸 전체서부터 눈썹과 수염까지도 바르게 하고 팔꿈치와 무릎은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뒤틀리지 않게 껴놓는다. 만약 재때에 못하면 수족이 뒤틀러 장차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을 것이니 재때에 살피는 것이 옳다...’고 하여⁵⁹⁾, 수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운명을 확인하고 나면 먼저 눈을 감기고 배설물을 치운 후 몸을 깨끗이 한 다음 몸을 굳어지기 전에 팔다리를 반듯하게 한 다음 정갈한 옷(수시복, 수세복이라고도 한다)으로 갈아 입힌다. 그런 후 머리를 빼개로 피고 두 팔과 손, 양어깨 부위, 팔꿈치, 무릎, 정강이 부분을 동여 매고 발 끝이 뻗어서 굳어지지 않도록 발목을 정상으로 굽혀서 고정시키며, 무릎을 고정시킨 끈과 발목을 고정시킨 끈을 연결하여 준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묶고 양발의 엄지발가락을 묶

어 서로 직각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다음 턱이 처지지 않도록 보공을 만들어 턱을 받쳐주며, 코, 귀 등을 막고 백지나 탈지면으로 머리를 덮어 마무리하기도 한다. 수세포(흠이불)로 덮은 후 머리와 다리부분의 이불을 안쪽으로 말아 마무리하고 벽 쪽으로 모시며,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상을 차린 다음 고인의 시신을 올려 놓고 촛대와 향로를 놓은 다음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2) 염 습(斂襲)

습(襲)이란 원래는 의복을 겹쳐 입는 것⁶⁰⁾을 의미한다고도 하나, 요사이는 옷을 겹쳐놓고 시신을 목욕시킨 후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합해서 염습으로 말한다. 소렴은 수의를 입힌 다음 매장포(埋葬布)로 시신을 싸서 단단히 동여매는 절차이며, 대렴은 입관시키는 것이다. 옛날에는 목욕을 운명 당일에 하고, 소렴을 사망 이튿날하며, 대렴은 소렴한 다음날 한다⁶¹⁾고 하였다. 그러나 요사이는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힌 다음 포로 싸서 요와 이불을 덮어 입관시키는 과정이 사망 다음날 염습이라 하여 습과 소렴, 대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습(襲)

시신에게 옷을 입힐 때 가능한 한 시신을 덜 움직여야 하므로 먼저 입히기 편하도록 옷을 겹쳐 놓는다. 한번에 옷을 입힐 수 있도록 옷은 옷깃끼리 아래웃은 아래웃끼리 겹쳐서 입히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다. 병풍을 걷어내고, 흠이불(수세포)을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한쪽에서 들도록 하고 수시할 때 동여매었던 끈을 푼 다음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빼내고 수시복을 벗겨낸 후 목욕을 시킨다. 목욕시키는 물은 깨끗한 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며 탈지면이나 수건(타올)에 목욕물을 적시어 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리, 몸, 상체, 팔, 손 순서로 닦아 낸다. 얼굴은 수의를 입힌 후에 반함을 할 때 한다. 다음에 양쪽 발톱을 깎아 각각 오냥에 넣어 양쪽 발가락에

58) 김춘동, 前掲書, p.264.

59) 김관봉, 『관혼상제』, 태서출판사, 1987, p.94.

60) 장인우, 前掲論文, p.20.

61) 법제처, 前掲書, p274-279.

끼운 다음 버선을 신기며, 양쪽 손톱을 깎아 각각 오냥에 넣어 양쪽 손가락에 끼운 다음 악수를 한다. 네 모로 연결된 형태의 악수는 손을 다 감싸는 것이 아니고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네 손가락을 싸는 것으로 손가락을 반듯이 하여 싸는 것이며, 요사이의 악수 모양은 주로 엄지가 없는 병어리 장갑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손가락만이 아닌 전체 손을 끼워 손등의 팔목 쪽에서 두 끈을 모아 비틀어 한 쪽에 끼우면 간단히 악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아래옷을 입히게 된다. 먼저 머리 겹쳐 놓은 아래옷을 앞뒤를 정확히 살핀 다음 한쪽 손을 겹친 바지 부리 쪽 속에 넣고 다른 한쪽 손으로 다리 한쪽을 든다. 부리 쪽 손으로 다리를 잡도록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지를 끌어 당겨 허리까지 오도록 하여 입힌다. 허리를 여미고 허리띠와 대님을 한다.

여자도 같은 방법으로 바지를 입힌 후 그 위에 치마와 속치마를 입히게 된다. 바지를 입힌 후 치마를 배 위에 덮고 한쪽 엉덩이를 옆으로 살짝 들어 들러 허리 밑으로 끈 달린 치마 쪽을 넣고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양쪽으로 끈을 빼내고 앞에서 끈을 동여 끼운 다음 뒷 옷을 입힌다. 겹쳐진 옷을 다리 밑에서부터 어깨까지 치운 뒤 다음 팔을 끼우고 앞을 여미고 고름을 한다. 다른 방법으로 입히기도 하는데 먼저 겹쳐진 상의의 한쪽 팔을 먼저 끼운 다음 옷을 말아서 등이나 몸체 밑으로 밀어 반대편 팔 쪽에서 옷자락을 꺼내어 한쪽 팔을 마저 끼워 입히며, 앞을 여미고 고름을 하고 걸옷에 등삼결로 대를 한다. 다음 수의를 잘 여며 마무리하고 습산을 신는다.

다음에 머리를 감기고 얼굴을 닦는다. 얼굴은 코 속이나 입 속, 귀 속까지 솜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머리는 목욕물을 수건이나 탈지면에 적시어 머리를 끌고루 닦는 것으로 단정하게 빗질하고 떨어진 머리카락을 남은 하나의 오냥에 담는다.

그리고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이란 쌀이나 구슬을 입안에 물리는 것으로, 입안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물에 불린 쌀을 유시(버드나무 수저)로 떠서 입에 넣는데 먼저 오른편, 다음에 왼편, 그리고 가운데를 넣는다. 구슬도 똑같은 방법으로 물린다.

그런 후 충이를 하고 명목으로 얼굴을 감싼 다음, 한 개 남은 오냥에 머리카락을 넣어서 복건이나 역모 속에 넣고 썩우고 나서 얼굴이 움적이지 않도록 턱에 보공을 하기도 한다.

(2) 소 령(小斂)

수의를 입힌 시신을 의금(衣衾)으로 수렴한다는 뜻으로, 이불(소렴금이라고도 함)로 싸서 매포·염포로 단단히 묶는 것이다. 소렴의 절차는 배 세 쪽의 양끝을 각 세 갈래 하여 가로로 펼쳐 놓는 다음 그 위에 소렴금을 펴고 지요와 배개를 칸 다음 시신을 들어 요 위에 옮긴 후 천금(이불)으로 덮는다. 이불 없이 소렴금으로 싸기도 한다. 소렴금으로 감싸는데 먼저 발을 싸고 머리를 싸며, 몸은 왼쪽을 먼저 싸고 오른쪽을 싸다. 머리부터 묶어 주는데 머리 부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엇갈리게 겹쳐만 놓고 세 번째부터 차례로 아래로 묶어간다. 발 부분은 얼굴과 반대로 끝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엇갈리게 놓고 세 번째는 묶어 발 부분으로 끈을 마무리한다.

매장할 때 관(棺)은 태워버리고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脫棺)·퇴관(退棺)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소렴할 때 배로 시신을 단단히 묶어 주는데 이를 매질한다⁶²⁾고 하며, 탈관 시에는 매질을 반드시 하지만, 관 채로 매장하는 지역에서도 매질을 하기도 하여 본 논문에서 매질하는 법으로 21매를 하는 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배⁶³⁾는 몸을 묶을 수 있도록 넉넉한 길이로 7폭으로 자른 후 양쪽 끝을 각각 세 갈래로 나누어 놓는다. 바다에 7폭의 배를 깔고 소렴한 시신을 그 위에 옮긴 후 먼저 머리 부분의 세 갈래 중에서 세 번째 갈래와 반대편 첫 번째 갈래를 엮어 준다. 반대 쪽도 역시 세 번째 갈래와 첫 번째 갈래를 엮는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끼리 엮어준 다음 차례로 마주보고 있는 갈래끼리 엮어 다리까지 매를 지어 준다. 발 부분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갈래와 첫 번째 갈래를 엮어주고 나서 가운데끼리 엮으며, 발 가운데는 설치할 때와 같이 한번 둘러서 발바닥 쪽으로 엮은 끈의 끝 부분을 끼워 마무리한다. 위에서부터

62) 신규호, 유정행, 前掲書, p.93.

63) 이 때 묶는 배를 매질할 때 쓰는 배이라 땃배라고도 한다.

차례로 엮고 나면 21번의 묶음 매가 생기게 된다. 이를 21매 한다고 한다.

(3) 대 렬(大斂)

시신을 관속에 입관시키는 과정이다. 먼저 관속에 석회를 고루 깔고 백지를 편 후 칠성판을 놓은 다음 그 위에 대렴금을 간다. 요사이는 엮포를 많이 사용하며 날개부분을 관 바깥으로 내놓아 덮기 좋게 해 둔 후 지요와 배개를 간 다음 시신을 모신 후 천금을 덮은 다음 대렴금으로 쓴다. 대렴금은 발 쪽부터 덮으며 머리 쪽을 덮고 나서 왼쪽을 덮은 후 오른쪽을 덮는다. 요사이 금과포의 혼용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엮포의 경우 날개부분을 아래부터 덮으며 위를 덮고 나서 왼쪽을 먼저 덮고 오른쪽을 덮어 덮을 여민다. 관 속의 빈 곳에 보공을 한다. 고인이 평시에 입던 옷이나 줄푼 말린 것을 잘라 창호지에 말아 보공을 하기도 하고 요사이는 백지나 종이로 채우기도 한다. 그리고 구의(柩衣)로 위를 덮는다. 요사이는 백지로 덮기도 한다. 그런 후에 관의 뚜껑을 덮어 못질한다.

입관이 끝난 후 소창으로 관 끈을 잘 쥐고 손잡이를 만들어 운구하기에 좋도록 한 다음 명정(銘旌)을 덮고 관보를 씌운 다음 제자리에 관을 모시고 병풍을 친다.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魂帛)을 둔다. 요사이는 사진으로 대신하는 것이 상예(常禮)이다.

3) 성 복(成服)

성복이란 상복(喪服)을 입는 것으로, 대렴이 끝나고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었음을 고하는 성복제를 지내게 된다.

이상이 현행수의를 착의법으로서 조선시대의 착의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예서에 나와 있는 엮습의 과정에서는 울곡이나 도암같이 수시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에서 보듯이 수시가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수시란 말이 상례절차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수시가 엮습하기 전의 하나의 중요한 절차로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오랫동안 장례가 진행되므로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 얼굴을 채우는 설빙 등의 절차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에는 냉장시설이 이용되고 있지만 집에서 상(喪)을 차르는 경우

는 그런 절차가 행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목욕 후에 옷을 입히면서 반함을 하고 그리고 겹옷을 입히고 얼굴을 씻은 후 악수를 하면서 습을 마무리하였으며, 수의를 입힌 후 소렴을 할 때 가로 세 폭, 세로 한 폭으로 포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펼쳐서 염의(斂衣)와 산의(散衣)로서 보공을 하였으며 이불을 덮을 때 발부터 싸고 머리를 덮었으며 교포는 매지 않았다. 대렴을 할 때도 가로 다섯 폭, 세로 한 폭으로 간 다음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소렴시 매지 않았던 포를 매고 시신을 옮긴 후 염의와 산의, 머리털, 이, 손·발톱으로 보공을 하여 채우며 이불을 덮고 포로 세로를 싸고 가로를 싸서 대렴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대와 비교해 보면 습, 소렴과 대렴의 과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산의 및 염의의 수도 많고 시행하는 날짜도 달랐다. 그러나 현대는 목욕과 습, 소렴과 대렴의 과정이 한꺼번에 한날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욕을 시키면서 바로 수의를 입히고 반함을 하며 지방에 따라 이불 형태의 금으로 소렴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소렴을 간단히 가로포로서 묵기도 하고, 대렴포를 깔고 대렴을 한 후 관 속에 넣기도 하며, 관속에 가로와 세로가 붙여진 엮포(매포, 멧베)를 깔고, 지요와 배개를 놓고 수의를 입히거나 소렴을 한 시신을 놓은 후 천금으로 덮고 세로 포를 덮고 가로를 덮어 대렴을 끝내기도 한다. 금(紼)과 포의 역할이 혼용되고 있고 산의 및 염의의 수도 줄어들었으며 (수의 이외의 옷은 염의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절차도 많이 생략되고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악수는 형태 및 착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사각형태의 악수는 예서에 나타나 있는 착의법과 다산(茶山)이 주장하는 착의법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현대에도 조선시대와 같은 형태의 악수를 착의시킬 때는 예서대로 손가락을 반듯이 한다는 의미의 착의법을 따른다기보다 손을 덮는다는 의미로 편리한대로 착의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갑 형태의 악수는 그대로 끼워서 팔목을 묶어 쉽게 착의시킬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손을 감싸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착의 순서에 있어서도 조선시대 엮습에서는 마지막에 악수를 착의시키고 습을 마무리하였으나 현행엮습에서는 악수

를 목욕을 시키고 맨 먼저 착의시키고 있다. 버선도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착의시키고 있어 조선시대와는 착의순서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오냥에 넣은 손·발톱, 머리카락도 조선시대에는 대렴시 관 속에 보공으로 넣었으나 현재는 악수, 버선, 복건·여모 속에 넣어 착의시키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퇴계의 상주의 직염(直殮), 직습(直襲) 주장이나, 비교적 현대인 성기희의 「염습고」에서도 나타나는 자손의 당연한 염습이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고, 자손이 직접 하고 싶어도 불 기회도 없고, 그에 관한 책자나 연구도 없어 배울 수도 없는 실정에서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시작하였다.

죽음은 현재에서 최후로 통과하는 관문이며,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의례인 상·장례를 통해 사자(死者)를 의례복으로 성장을 시킴으로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장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인 염습의 절차와 사자에게 입히는 수의와 그 착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순서는 먼저 상·장례의 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내용으로는 수의를 만드는 옷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수의는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지, 죽음에 이르러 운명하면서부터 시신을 수습하고 염습을 해서 입관하기까지 과정은 어떠한지, 수의를 입히는 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이 없었던 시대는 고분, 분묘의 형태와 부장품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영생불사를 염원하는 당시의 생사관, 저승세계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삼국시대에는 늬으면 미리 장사지낼 준비를 하였으며, 죽으면 널을 쓰고 수의를 입혀 염습을 하여 후하게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순장이 금지되고 상복법이 제정되는 등 상·장례 절차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기본적인 상·장례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셋째,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발달하였다. 넷째, 조선시대에 들어서 죽음에 대한 예(禮)는 유교적 통치이념에 의해 국가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예서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인 상·장례절차는 같으며, 수의도 왕의 경우 칭(稱)수가 추가되는 정도였으며 옷의 형태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 자신이 입었던 옷이 수의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신분에 따라 절차나 의복의 칭 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서에 따라 절차를 지구(之具) 등으로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시대에 따른 변천에도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의의 재질은 주로 삼베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목면이나 인견, 명주도 이용되고 있었다. 수의의 색채는 옷감 그대로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연한 옥색이나 분홍색 등을 배색하기도 하고, 흰색이나 검정이 사용되기도 하고 새로 장만하지 않고 혼인 때의 예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의의 품목은 남녀 공용으로 면목, 과두, 오냥, 악수, 버선, 습신, 대렴금, 소렴금, 천금, 지요, 베개 등이 있다. 남자 수의는 심의 혹은 도포나 두루마기, 저고리와 속적삼, 바지와 속바지, 복건, 행전 등이 있으며, 여자 수의는 원삼, 저고리와 속적삼, 바지와 속바지, 치마와 속치마, 여모 등으로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수의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수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에서는 남자품목, 여자 품목, 공용품목 자체의 변화는 없으나, 조선시대에는 소렴과 대렴시의 염의나 산의 등이 19칭에서 50칭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의 자체가 간소하게 제작되고, 소렴과 대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품목에서 약간 줄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불과 포의 기능을 하는 염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염의나 산의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수의 입히는 순서는 조선시대 염습에서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면서 반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저 걸옷을 입히고 악수를 한다. 다음날 소렴을 하며 소렴 시는 포를 매지 않는다. 다음날 대렴을 하게 되며 대렴은 관속에 포와 이불을 준비하고 소렴한 상태에서 대렴 때 소렴포를 매고 관속으로 옮겨서 대렴을 마무리한다. 현행 염습에서는 운명이 확인되면 시신을 바르게 수습하는 수시를 사망 당일에 하며, 수시가 끝난 후 다음날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입히게 된다. 수의는 먼저

약수와 버선을 신기며 아래로부터 입히고 옷웃을 입힌 다음 대를 하고 습신을 신는다. 반합을 한 후 명목을 하고 복건이나 여모를 씌운다. 그런 후 소렴금이나 포로 쓴 후 관 속에 엄포를 깔고 지요와 베개를 놓은 다음 수의를 입힌 시신을 올려놓은 후 천금을 덮고 포로 써서 입관을 시킨다. 입관시킨 후 관을 덮고 묶은 후 성복을 한다.

조선시대의 상례절차 및 수의의 제질, 품목을 현대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현대에는 간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착의방법에서는 옛날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착의 순서에서 약수나 버선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나중에 착의시켰으나 현대에는 가장 먼저 착의시키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절차에서는 현대에는 엄습이 사망 다음날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간편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서>
『家禮考證』
『家禮諺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三國遺事』
『喪禮備要』
『喪禮諺解』
『四禮便覽』
『朱子家禮』
- <단행본>
『國朝五禮儀』, 신흥인쇄 影印本.
고려대민속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1·2』,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국립민속박물관, 『영원한 만남 '한국의 상례』, 미진사, 199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2천년』, 도서출판 신유, 1995.
김관봉, 『관혼상제』, 태서출판사, 1987.
김득중, 유송옥, 황해성,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88.
김숙당, 『조선재봉전서』, 민속원, 1925.
김원룡,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김춘동, 『云丁散葉』,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98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예절편)』, 1987.
박장규, 『四禮參考便覽』, 삶과 꿈, 1999.
박영순, 『전통한복구성』, 신양사, 1993.
석주선, 『우리나라 옷』, 광문출판사, 1961.
손경자, 김영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 교문사, 1982.
송호수, 광명숙,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작품 전시회 자료집』, 불교자원봉사연합회, 1998.
신규호, 유정행, 『원왕생 의식집』, 대한불교연화회, 1998.
산의철, 『상례요람』, 도서출판 보경, 1990.
은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考書』, 은양민속박물관, 1989.
우봉 이씨 대종회, 『국역 사례편람』, 1999.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윤상윤, 『가정의례와 민속』, 신성출판사, 1996.
의례간행편집회, 『가정의례백과』, 청암출판사, 1997.
이민수, 『朝鮮傳』, 탐구당, 1995.
이여성, 『朝鮮服飾考』, 白揚堂發刊, 1947.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 응진출판, 1995.
전경수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조선일보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올바른 가정의례』, 1988.
조양재, 『가정보감』, 일신서적, 1984.
조효순, 『생활한복』, 계몽사, 1985.
최덕수, 『관혼상제전서』, 일심문화사, 1990.
한국인문과학원, 『四禮便覽』.
한중수, 『관혼상제대전』, 명문당, 1981.
홍윤표, 『家禮諺解』, 흥문각, 1984.
홍윤표, 『喪禮諺解』, 흥문각, 1997.
- <논문>
남민이, 『가정과 교육이 여성 결혼 예식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남민이, 백영자, 『현행 수의 착의법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제3권 2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999.
박성실, 고부자, 『성남출토 동래 정씨 출토유물에 관한 소고』, 단국대 석주선민속박물관, 1989.
성기희, 『염습고』, 관동대논문집 8, 관동대학교, 1981.
송미경,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순남숙,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순남숙, “다산의 염습의 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은주, “16세기 중엽 여성 염습의의 일례”, 복식 제 48 호, 한국복식학회, 1999.
- 이종선, “우리민족의 상례와 제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국민대학교, 1975.
-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유관순, “문헌에 나타난 수의와 현행 수의와의 비교연구”, 복식 제 39호, 한국복식학회지, 1998.
- 유관순, “한국·중국의 악수에 관한 연구”, 복식 제 47 권, 한국복식학회지, 1999.
- 유희경, 김미자, 강순채, “염습의”,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1989.
-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전영숙, “수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권 2호, 한국의류학회지, 1977.